



An SoRa

Successor of Korea intangible cultural treasure

2013 Wonju city Korean lacquer contest
 2014 BFA Hanseo University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2015 MODUM Exhibition (Nanum gallery/Korea)
 2015 Certified Master of Culture properties repair in Korea
 2016 A little closer, Korean lacquer exhibition (KCDF Art shop/Korea)
 2016 Lollyjin art society
 2017 offtime popupstore exhibition



安霄羅

韓国国家無形文化財 第113号 漆匠 伝承者

2013 第12回 原住漆工芸大展 特選
 2014 韓瑞大大学校 文化財保存処理学科 卒業
 2015 MODUM展 (ナムギャラリー・韓国)
 2015 韓国 文化財修理技能士 漆資格証 取得
 2016 もっと近づく、漆展 (KCDF ギャラリーショップ・韓国)
 2016 Lollyjin art society 参加
 2017 offtime popupstore 展

«christmas light 1» 2016

丸沼芸術の森は1985年、須崎勝茂氏(株式会社丸沼倉庫 代表取締役)により設立され、40名以上のアーティストを輩出してきました。30年以上の支援活動の結果、村上隆氏を始め、多くの作家が現在、国内外で活躍しています。丸沼芸術の森は制作の場に留まらず、アートと社会を結ぶ架け橋となっています。今後は、国際文化交流を通じ、よりグローバルな活躍を各作家が目指せるようにレジデンスや展覧会の企画などを積極的に行い、活動の幅をさらに広げていきます。

Marunuma Art Park was established by Mr. Katsushige Susaki in 1985, and we hosted over 40 artists since then. Many artists, including Takashi Murakami, are active both at home and abroad as a result of our continued support to artists for over 30 years. Marunuma Art Park is not only a space for the conception of art but also acts as a bridge connecting art to society. We aim to further expand by broadening the range of our activities and proactively executing residency programs and exhibition plans. We hope that our artists can become more involved in international exchanges and globally more active.

丸沼芸術の森
Marunuma Art Park

〒351-0001 埼玉県朝霞市上内間木493-1
 TEL: 048-456-2533
 FAX: 048-456-0003
<http://marunuma-artpark.co.jp>
<http://marunuma-artpark.esy.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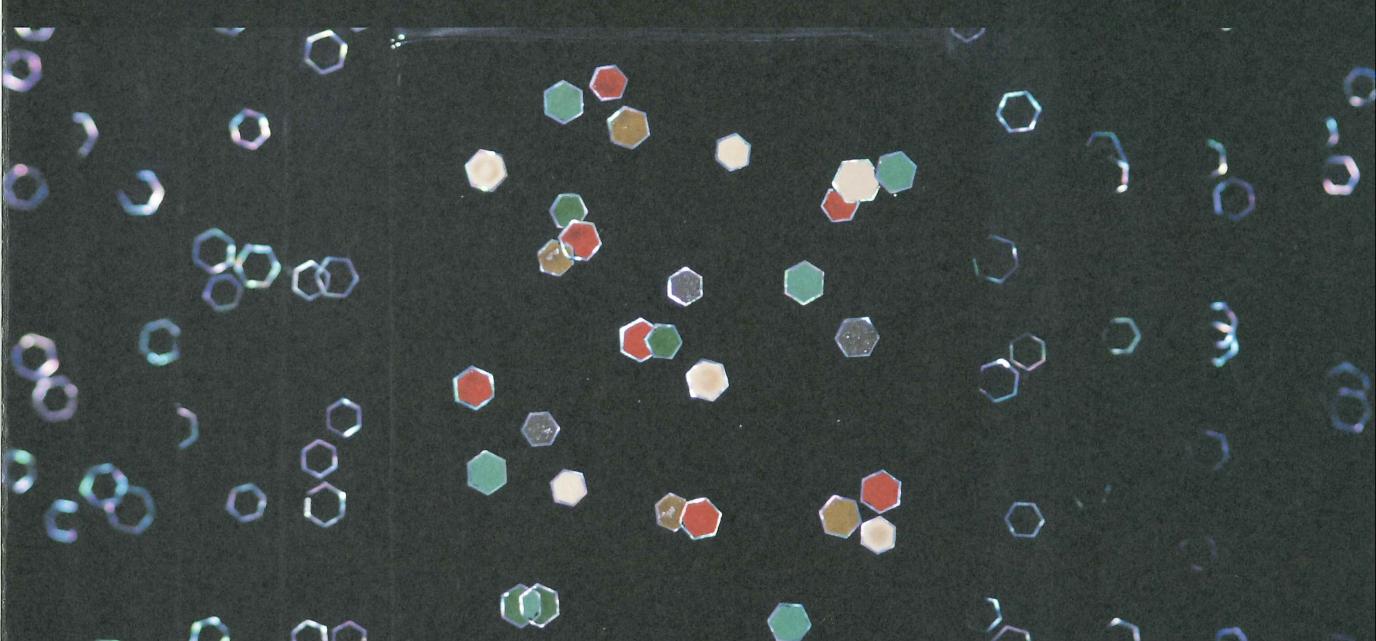
安霄羅 展—可視化

主催: 丸沼芸術の森・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
 後援: 駐日韓国文化院・Azabujūban Gallery

安霄羅 展

可視化

Visualization



Marunuma Art Park
 2017 artists-in-residence program No.2

2017年6月23日（金）-25日（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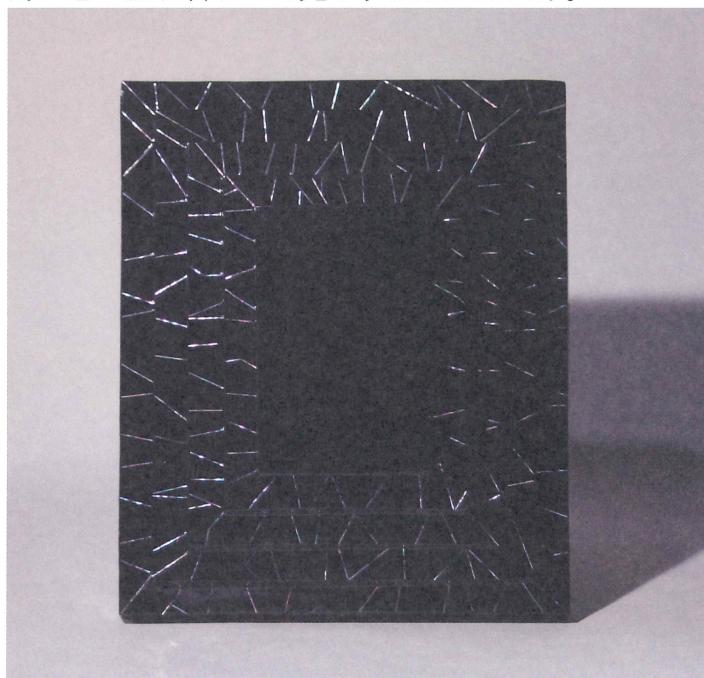
螺鈿細工の心 — 安霄羅による伝統と感性の融合

丸沼芸術の森と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が共同で実施するアーティスト・イン・レジデンス・プログラム、二人目の作家として滞在制作を行う安霄羅は、伝統的な漆芸に独自の感性を取り入れた作品を発表してきた。

韓国における漆匠の人間国宝・鄭秀華氏の継承予定者として登録され、同氏の下で指導を受ける生活を4年程続ける中、安は今回のレジデンス・プログラムに参加している。国家による文化財保護政策によって、伝統工芸を継承しながらも、作家は自らの表現を取り入れた作品を目指しているからだ。

本展の名称「可視化」は、展示予定の作品「見えないけど、存在している内面」のテーマである。本作品は徐々に小さくなる直方体を5段、ピラミッド状に積み上げた形態をしており、それぞれの面には螺鈿による線が施される。この作品は作家自身の心の複雑さを表したもので、線は自身の心の傷の象徴として紋様化したという。鑑賞者は、この作品の表面を彩った螺鈿や、それぞれの面を全て同時に見る事はできない。人が、他者や自分自身の内面を完全に把握する事が不可能であることを表現したものとも言える。

「心の傷」を「螺鈿」で表現する本作のコンセプトから、破損した陶磁器への修復の継ぎ目を金で彩る「金継ぎ」を筆者は連想した。修復の痕跡を目立たないように仕上げるのではなく、逆に際立たせ、その趣を楽しむ日本独自の技法と言われる。本作品の螺鈿の鮮やかな輝きによる心の傷の象徴化は、心の傷が癒される時に人は成長するという事象をも「可視化」するように感じる。本作によって表現された作家の心は、鑑賞者が自身の心へ重ね合わせて見る事もできるだろう。



内面性を作品化する上で、メディアとしての伝統工芸は不自由であるようにも想像されるが、その制約を乗り越えて普遍的な表現を目指したい、と作家は語った。伝統工芸継承者として成長の過渡期にある安が、3ヶ月の滞在制作を通してアーティストとしても飛躍する事を期待したい。

大竹輝明
(丸沼芸術の森 学芸員)

«Visualization - self portrait 1» 2017

나전세공의 심(心) - 안소라의 전통과 감성의 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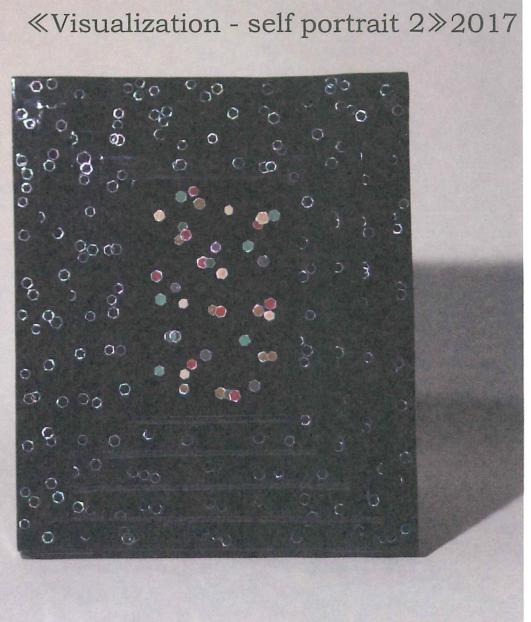
마루누마 예술의 숲과 한국 공예 디자인 문화 진흥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아티스트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두번째 작가로 참가한 안소라는 전통적인 옻칠공예에 독자적인 감성을 담은 작품을 발표해 왔다.

안소라는 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 제113호 칠장 정수화(鄭秀華)씨의 전수자로 등록되어 4년정도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차원의 문화재 보호 정책에 의해 전통 공예를 전수 받으면서도 안소라 스스로의 표현을 담은 작품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연유로 이번 마루누마 아티스트인 레지던스에도 참가하게 되었다.

이번 개인전의 제목 [가시화(可視化)]에 출품예정인 작품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내면>을 주요 테마로 하고 있다. 작품은 점차 작아지는 직육면체를 5단으로 쌓은 피라미드 같은 형태를 하고 있고 각각의 면에는 나전장식에 의한 선들이 입혀져 있다.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마음속의 복잡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전 장식에 의한 선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상처의 상징으로서 문양화 했다고 한다. 이 작품은 구조상 작품에 존재하는 면과 각 면에 장식한 나전에 의한 선을 감상자가 한눈에 볼 수 없게 되어져 있다. 이와같은 작품의 구조적 특징은 사람이 타인과 자기 자신의 내면을 완전히 파악하는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대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의 상처]를 [나전]으로 표현한 이번 작품의 컨셉으로 부터 필자는 부서진 도자기를 수리하여 금으로 장식한 [금 이어붙이기] 기법을 연상 하였다.

수리한 흔적을 보이지않게 다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각시켜서 그대로 살려내는 일본 독자적인 기법을 말한다. 이번 작품에서 나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통한 마음의 상처의 상징화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 되면서 인간은 성장한다고 하는 이미지도 [가시화(可視化)]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표현된 작가의 내면은 감상자 스스로의 심정을 이입 하면서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내면을 작품화 하기 위한 소재로서 전통공예는 부자유(不自由)를 연상 시킬지도 모르지만 그 제약을 뛰어넘은 보편적 표현을 보여주고 싶다고 작가는 말한다. 전통공예 전수자로서 성장 과도기를 맞고 있는 안소라가 3개월동안의 레지던스 제작을 통해서 아티스트로서 비약해 나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오타케 테루아키 (마루누마 예술의 숲 학예사)